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84 | 2025년 12월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빈을 만나보세요

칼럼 - 크리스마스의 기쁨

성탄절의 아이들과 가족들

- 박해로 길거리 찢기다
-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만든 영향 / 멕시코
- 기도를 통한 희망
-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어린이들
- 방글라데시의 박해 상황 및 오픈도어의 지원

Heart to Heart

- 2026 월드와치리스트(WWL) 발표회
- 2026년 회지 격월 발간으로 변경
-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안내
- 어린이 박해지도, 어린이 기도어린, 희망의 저금통!

박해와 선교현장 - 방글라데시

희망의 선물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12월호 | 통권 284호 |
등록번호-종량,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김다운
민태홍, 유진영, 민찬양, 신예은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섭, 한로이, 송레아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
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
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
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칼럼 - 크리스마스의 기쁨

04 성탄절의 아이들과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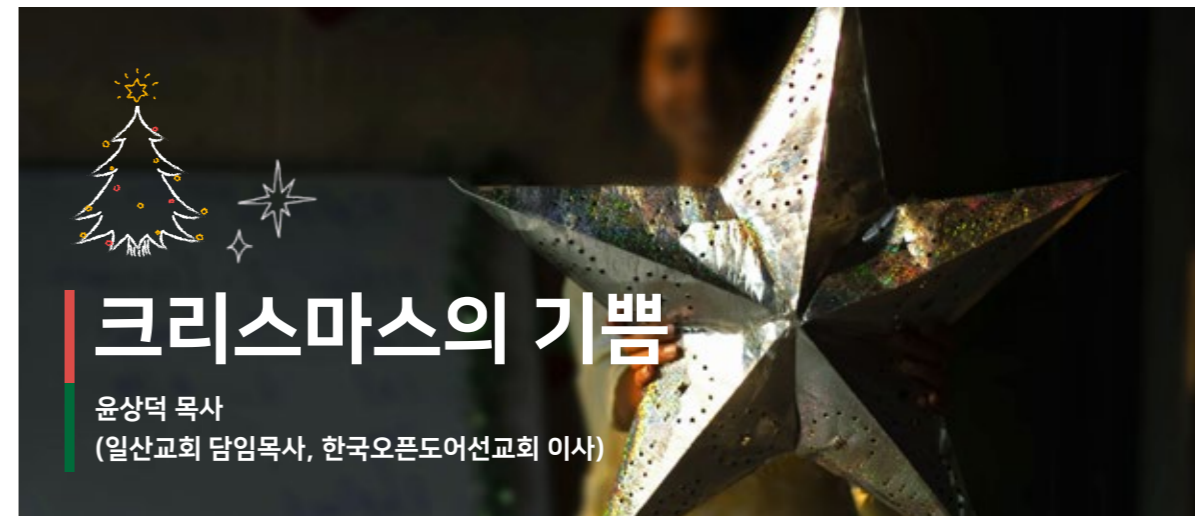
- 박해로 갈가리 찢기다
-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만든 영향 / 멕시코
- 기도를 통한 희망
-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어린이들
- 방글라데시의 박해 상황 및 오픈도어의 지원

18 Heart To Heart

- 2026 월드와치리스트(WWL) 발표회
- 2026년 회지 격월 발간으로 변경
-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안내
- 어린이 박해지도, 어린이 기도여권, 희망의 저금통!

20 박해와 선교현장 - 방글라데시

23 희망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기쁨

윤상덕 목사

(일산교회 담임목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

매년 11월만 되면 우리 교회 로비는 북적거린다. 선물
이 가득 쌓이고, 쌀 포대와 라면 박스도 넘친다. 선물은
우리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 협력 선교 기관
으로 전해진다. 쌀과 라면 박스는 나눔 기관과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께로 전해진다.

매년 선물이 넘쳐, 선교사님들께로의 헌물 신청은 신
청 시작 반나절이 못 되어 마감된다. 성도들이 주시는
대로 다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쌀과 라면 박스도 얼마나 넘치는지, 어느 가정에서는
매년 20kg 쌀을 100포대를 헌물하기도 한다.

받으시는 분마다 연락을 주신다. 너무 감사하다고, 아
이들이 너무 기뻐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 사역에 이름
을 붙였다. "Joy of Christmas"

우리 교회 로비에는 이런 기쁨의 선물들로 가득한데,
이 추운 날, 칼바람 몰아치는 백두산 자락에도, 압록강
근처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집마당에도 그럴까.
지금도 여전히 탈북을 시도하다 처형 되는 땅. 내가 섬
기는 교회에서 차로 20분만 달리면 강 건너 북한 땅이
저리도 선명히 보이는데, 그곳에는 칼바람 된서리 말
고 기쁨이 흐르고 있을까.

우리 교회 로비에는 보람된 일에 쓰임 받았던 기쁨이

넘치는데, 무슬림의 칼이 있는 땅에서, 자연재해가 할
퀴고 간 땅에서, 너무도 냉담한 땅에서 예수님 이름 전
하는 것이 기쁨까. 그래서 후배 선교사가 'Joy'라는 이
름 가지고 그리로 갔나 보다. 무슬림의 땅에 기쁨 주고
싶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고 기쁨이 넘친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이 기쁨의 땅이 된 것처럼, 박해받는
교회들에도, 박해받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들의 마
음에라도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함박눈처럼 내리면 좋
겠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를 더 기도한다. 엄동설한을 잠시
라도 풀어주는 따뜻한 햇볕이, 시커멓게 내리던 눈발
에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참새 소리가 그 험한 곳에서,
그 차가운 곳에서 오늘도 예수님 복음 전하는 선교사
님과 목회자들, 성도들의 마음에도 내리면 좋겠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셨다.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선물은 없겠지. 그래서 나는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믿
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고통당하는 땅들과 그
곳에 계신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 땅
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고통당하
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질투와 아픔이 오늘 그
곳의 마음마다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박해로 갈가리 찢기다

방글라데시의 로빈과 같은 아이들에게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단 하루입니다
- 올해, 여러분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열한 살 로빈(Robin)*은 들판 가장자리에 홀로 앉아 다른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
니다. 함께 뛰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전 기독교인이예요." 로빈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아요. 겁나서 같이 하자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빈은 그저 '기독교인'으로 불립니다. 소년의 눈은 공을 쫓는
소년들을 따라갑니다. "슬퍼요.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외로워요."

박해는 로빈의 삶을 가장 가슴 아픈 방식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의 관계에서만 고통받은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

로빈의 어머니 몰리(Moly)*는 가족 중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이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빌려 비밀리에 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몰리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치유를 위해 기도했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그날, 몰리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고, 남편 주바이어(Jubayer)*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방글라데시 전역에 폭력이 발생했고 급진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몰리, 주바이어, 로빈은 작은 가정 교회에 있었는데,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끄는 50여 명의 폭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가족은 도망쳤지만, 침입자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것이 로빈의 엄마와 아빠가 함께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충격을 받은 주바이어는 이슬람으로 돌아갔고 몰리와 이혼했습니다. 이제 로빈과 그의 엄마 몰리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공식적으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91%가 무슬림이며,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인 로비(Robi)*에 따르면,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방글라데시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로빈처럼 이슬람에서 개종한 아이들은 적으로 여겨지고 놀림을 받습니다. 로비는 "그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어 버려요. 격려 없이는 희망도 없고요. 홀로 남겨진

사람이 생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생존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축하

오늘날 로빈과 몰리는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리지만, 저를 돌봐주는 엄마가 있어요." 로빈이 말합니다. "엄마는 어린이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줘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모두와 함께 놀아요."

삶은 힘들고 외롭지만,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이날 단 하루만큼은 고통을 잊을 수 있습니다. 로빈은 크리스마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저는 손과 얼굴을 씻고 새 옷을 입습니다.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교회에 가요." 로빈은 눈을 빛내며 미소 짓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파티 모자를 쓰고, 케이크도 먹고, 모두와 함께 즐겁게 놀아요."

희망을 선물하세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은 로빈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로빈이 교육과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학비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가족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구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비전은 박해받는 아이들이 회복력있고 용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로빈과 같은 아이들에게 쉼터, 트라우마 상담, 구호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들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로빈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은 로빈과 다른 박해받는 아이들을 위해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 5만 원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박해받는 두 가족에게 필수적인 구호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7만 원으로 아이를 특별한 크리스마스 모임에 데려와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 12만 원으로 아이들의 믿음을 키워줄 성경 10권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

후원 계좌: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정기 후원(은행이체):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 CMS(나의 성탄절 선물)

정기후원(신용카드):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기도해 주세요

- 로빈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새 친구를 사귀고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 로빈의 어머니 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빈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박해로 인해 삶이 무너진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쁨과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알리샤(Alicia)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마을 사람으로부터 배척 받았을 때, 여러분의 후원은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멕시코 오악사카의 12세 소녀 알리샤*가 겪은 박해

“가장 겁났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를 산 채로, 한 명씩 불태울까 봐요.”

누구도, 특히 아이라면 이런 두려움에 직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멕시코 오악사카(Oaxaca) 출신의 12세 소녀 알리샤가 끔찍한 박해를 회상하며 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알리샤의 아버지가 원주민 송배 관습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이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알리샤는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을 허물지, 불태울지를 놓고 논쟁했어요.”라고 회상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전기와

물을 끊고, 땅을 빼앗고, 학교에 못 가게 막았어요.”

이것은 가족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알리샤는 “우리가 가진 게 다 없어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슬프게도, 제일 가까운 우리 친척들까지도 우리를 미워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그때, 여러분의 후원은 이 가족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용서와 미래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이 상황을 듣고 알리샤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기독교인 12가정이 '박해 대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샤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려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어요.”라고 말합니다. “그 분들이



여러분 덕분에 알리샤와 여동생은 마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번 크리스마스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우리에게 필요했던 말이었죠.”

알리샤의 어머니 플로르(Flor)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에게 우리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물을 통해 알리샤 가족은 작은 양 사육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상황에 대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샤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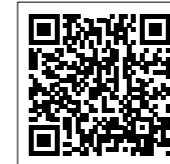
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기도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마을 지도자들이 대화에 응했습니다. 전기와 물이 다시 공급되었습니다. 일부 권리도 회복되었습니다. 알리샤 가족은 지속되는 역경 속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리샤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 모든 이름은 안전을 이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알리샤의 감사 고백

유튜브 채널에서 알리샤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 스캔)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 덕분에 알리샤 가족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이번 크리스마스에 알리샤 가족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멕시코 오악사카의 지역 공동체 지도자들이 교회 건축을 허용하기를 기도합니다.
- 올해 박해로 고통받은 알리샤와 다른 아이들의 정서적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한 희망

박해받는 세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용기와 믿음이 담긴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거부당하고 공격당하다

열다섯 살인 다얀(Dayang)*은 거부당하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에 있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녀를 피합니다. 다얀은 “제가 속한 부족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무슬림이어야 한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거부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조용한 십대 소녀는 폭력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반친구들이 다얀을 집까지 따라와 돌을 던지며 “배신자! 배신자!”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얀은 한숨을 쉬며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라고 회상합니다.

다얀의 믿음은 오픈도어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강해지고 있으며, 소녀는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얀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 정말 기쁨의 순간이에요.”라고 말합니다.



*다얀은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녀에게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다얀과 엄마(역시 신자입니다)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다얀의 아빠가 딸의 신실한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필리핀 남부의 박해받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시도록 간구해 주세요.

침묵의 원(CIRCLE OF SILENCE)

멕시코에 사는 열 살 소녀 알리사(Alissa)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소녀는 '침묵의 원(Circle of Silence)'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멕시코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소녀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선교사이며, 자신들의 믿음을 비밀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여전히 퍼져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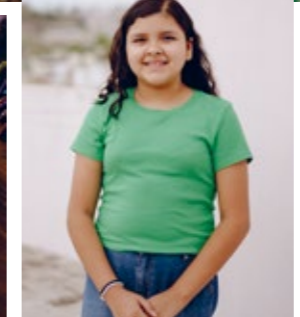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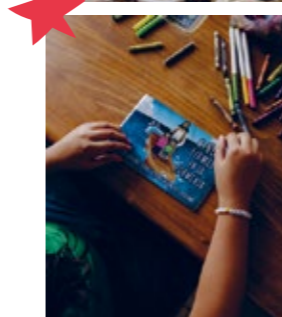


가족이 이 지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들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의심하여 그들의 반려동물에게 독을 먹였습니다. 강아지들은 죽었고, 알리사의 여동생은 심각하게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알리사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가 없습니다.

알리사는 “하나님이 제 친구예요. 예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저는 용감해지는 법을 배웠어요.”라고 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알리사는 오픈도어의 박해 대비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이 훈련이 소녀를 강하게 해 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 가장 위험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신자들 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계점에 다다르다

중아시아에 있는 집 근처 노래 경연 대회에서 미나(Mina)*는 무대에 올라 1등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수상을 통보 받고 시상식에 특별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우승자로 호명된 이름은 미나가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나는 “그 사람들은 오직 무슬림만이 1등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상처받았어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함은 미나가 자신의 믿음 때문에 겪는 끊임없는 괴롭힘 중 단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계속되는 박해 때문에 소녀는 결국 ‘더는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미나의 엄마는 미나가 비밀리에 온라인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방법’을 검색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미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이번 크리스마스에 미나가 두려움과 위험 없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미나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탄절 기도문]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에 직면한 모든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기쁨과 평화, 교제로 그들을 감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에 살고 있어 축하할 수 없는 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오신 주님의 빛과 끝없는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아멘.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wig하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EEKLY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방글라데시의 박해 상황 및 오픈도어의 지원

Q. 방글라데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들이 겪는 박해는 어떤 모습인가?

방글라데시에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박해를 경험합니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면, 가족과 형제자매, 부모, 친척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차별과 냉대를 받으며, 마을에서도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것이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Q.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이런 어린이 박해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나요?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차별이나 박해를 어느 정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특히 심각한 박해는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 북부와 남서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무슬림 배경을 가진 개종 기독교 어린이들은 가장 거친 대우와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Q. 아이들은 이런 종교적 박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어떻게 견뎌내나요?

방글라데시에서 박해받는 어린이들은 트라우마 상담이나 특별한 돌봄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성장하는 동안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밖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꺼리고, 넓은 친구 관계를 만들려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혼자 지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닫힌 마음가짐과 방어적인 태도는 점점 더 많은 박해받는 아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Q. 기독교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는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식량, 의료비, 어린이들의 학비 등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구호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강인하게 설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심리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SSTS(Standing Strong Through the Storm,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기' 훈련) 과정에 초청해, 그들이 당면한 박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힘을 얻도록 돕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시켜 그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공동체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소속감과 위로를 느끼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이런 지원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강화했나요?

박해받는 신자들은 오픈도어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그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배운 점을 나누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박해를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박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공동체 내에서 오는 압박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그들은 무슬림 중심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실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Q. 만약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어린이와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신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들은 희망을 잃고, 믿음을 이어가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그들의 삶은 이미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부정적인 대우를 받으며, 때로는 거처도,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함께 서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의 종교로 돌아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무슬림 다수 사회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버티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용기, 동행,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훈련, 격려, 그리고 소망을 통해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Q. 로빈과 그의 어머니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나요?

로빈과 몰리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고, 가족이 찢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리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로빈은 아직 어리지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소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꿈은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몰리와 로빈의 삶은 박해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자, 방글라데시의 모든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WORLD WATCH LIST

월드와치리스트 발표회

일시: 2026년 1월 15일 (목)

2026년 1월 15일, 목요일에
월드와치리스트(WWL) 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회 당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온라인에서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행사 시간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유튜브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해당 일시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신 분들은 해당 일시에 카카오톡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회지 격월 발간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저희 월간 오픈도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동역자님.

2026년부터는 1월, 3월, 5월, 7월 등의 홀수월에만
회지가 발송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안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의 소식들을
이메일로 매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QR코드
2. 문자 / 전화 신청 :
'성함과 이메일 주소, 이메일 뉴스 신청'
이라고 적어서 010-7548-3171번으로
문자주시거나 전화하여 신청해 주세요.



[QR스캔하기]

어린이 박해지도, 어린이 기도여권, 희망의 저금통! 활동 사진 공유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주안장로교회 아동 1부에서 어린이 박해지도, 어린이 기도여권, 희망의 저금통, 50일 기도책자를 신청하신 후 교회 자체적으로 만드신(아래 왼쪽 하단의 캐리어 모양 자료) 자료와 함께 활용하신 사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해당 교육이 끝나고 희망의 저금통에 모인 소중한 동전들을 후원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와 가정에서도 어린이 박해지도 등의 자료를 이용하시는 것에 참고해 보세요. 사용 후 후기를 odsk@opendoors.or.kr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어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 현재는 2025 어린이 박해지도가 소진되어 제공이 어렵습니다. 어린이 기도여권만 제공 가능합니다. 2026년도 어린이 자료가 나오면 이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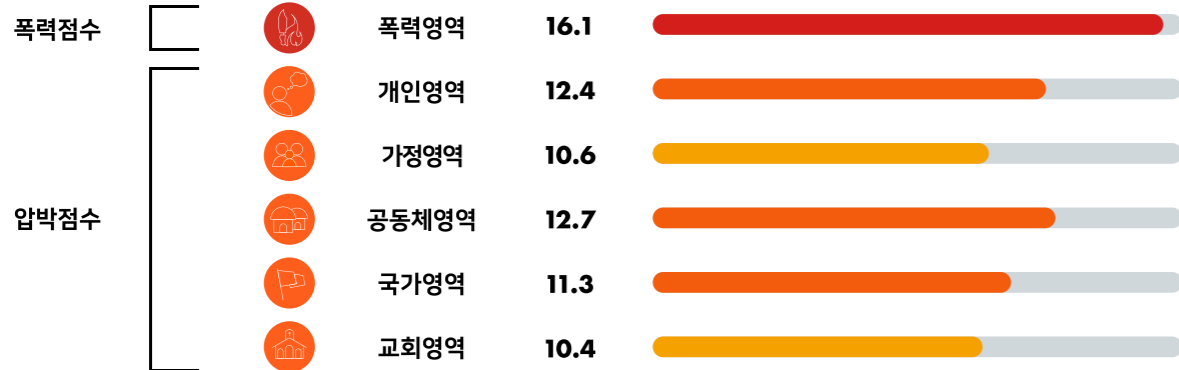
방글라데시 (BANGLADESH)

24위

기독교 박해지수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방글라데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의 출신 배경이 무슬림, 힌두교, 불교, 부족/민족 집단 등 네 갈래로 나타나는 드문 국가 중 하나다. 이들 개종자는 극심한 제약, 차별, 폭력에 직면한다. 대부분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규모 가정교회나 비밀 모임을 구성해 예배를 드린다. 무슬림 다수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복음주의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역사적 교단조차도 공격 및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부족 출신 기독교인은 민족적 소수자이자 종교적 소수자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지니며, 토지 강탈과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무슬림 로힝야 가운데 기독교인은 그들 공동체로부터 괴롭힘과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2024년 8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국외로 도피한 이후 발생한 사회 불안은 힌두교도와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 소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개종자에 대한 많은 공격 사례는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Bangladesh)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마드 사하부딘 추피 대통령
 인구 : 174,701,000명
 기독교인 수 : 950,000명 (OD 추정치)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950,000	0.5
무슬림	155,361,219	88.9
힌두교	16,195,663	9.3
불교	1,253,212	0.7

출처¹

방글라데시는 불안정한 역사를 지닌 비교적 신생 국가로, 1971년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다. 이후 민간정부와 군부가 번갈아 권력을 잡았으며, 선거는 반복적으로 폭력 사태를 동반해왔다. 점점 더 많은 국제 관측자들은 방글라데시가 2015년 이후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로 자리잡았다고 보고 있다.

2009년부터 장기 집권해온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강경 통치로 알려져 있었으며,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학생 시위를 계기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후 하시나는 인도로 망명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Mohammed Yunus)를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출범했다.

2024년 4월 기준,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base)는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89%가 대부분 수니파인 무슬림이라고 추산하였다. 전통적으

로 기독교 공동체와 정부 간 관계는 양호했으며, 하시나 총리는 2014년 7월 가톨릭 여성 1명을 개인 보좌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세속 언론인과 다양한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일련의 살해 사건은 기독교 공동체로 하여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최근 수년 간 급진 이슬람주의의 확산은 힌두교도(9% 수준)에게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며 사회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는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 또는 강한 이슬람 중심 문화로부터 즉각적인 압력을 받는다.

무신론자나 인권 블로거에 대한 살해 위협은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DW, 2020년 8월 24일). 한편 관찰자들은 초법적 처형과 실종 사건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정부와 보안 당국으로 하여금 감시를 받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2022년 6월, 오랜 역사와 명성을 지닌 인권단체 오디카(Odhikar)의 재등록이 거부된 것은 이러한 국제 압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독재적 편견이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 오디카의 공동 설립자들이 2023년 9월 다카 사이버 법원에서 각각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정부가 통치력과 대외 이미지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Benar News, 2023년 9월 14일).

¹ 데이터 출처: Zurlo, G. A. &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방글라데시의 기독교인 가운데 약 절반은 로마 가톨릭교회에 속해 있으며, 이 교회는 전국에 걸쳐 교구를 두고 있다. 개신교 신자들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치타공 힐트랙(Chittagong Hill Tracts)의 소수 민족 부족 지역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인다. 개신교 교단으로는 침례교, 브레드런, 루터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하나님의성회, 그리고 성공회와 감리교 연합 교단인 방글라데시 교회(Church of Bangladesh)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전체 인구의 98%가 벵골인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일 민족 국가이지만, 차크마(Chakma)와 같은 소수 민족도 존재한다. 또한, 치타공 힐트랙에는 가로(Garo), 산탈(Santal), 바움(Bawm) 등으로 구성된 '힐 부족(Hill Tribe People)'이 살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기독교 신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힐 부족은 당국으로부터 방치되거나 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수 집단에 의해 토지 강탈, 주택 및 경작지 파괴와 같은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부족이자 기독교인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다른 부족으로부터의 공격도 상시적인 위협 요소다. 실제로 2023년 4월에는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기독교인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방글라데시 북부 지역, 특히 다양한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치타공 힐트랙(Chittagong Hill Tracts)은 무슬림 다수와 불교도 소수 양측에 의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간과된 주요 피해 지역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또 다른 피해 지역이 생겼는데, 이는 방글라데시가 인접국 미얀마에서 넘어온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남동부 끝단에 위치한 콕스바자르(Cox's Bazar)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이들을 충분히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본국 송환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난민들이 캠프에 장기간 머물수록 일부가 이슬람 급진주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군사정권이 남아 있는 로힝야 소수민족을 계속해서 탄압함에 따라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길도 막혀 있다. 난민 캠프 안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로힝야인도 있으며, 이들은 점점 강해지는 압력과 폭력에 시달리지만 도피할 방법이 없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집단에는 대사관 직원과 섬유 산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급진 이슬람 무장세력의 감시와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미얀마 출신 로힝야인도 이 범주에 해당된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집단에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방글라데시 성공회(Church of Bangladesh, 성공회 계열)가 포함된다. 이들은 자주 위협을 받고 감시당하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 범주는 무슬림, 힌두교, 불교, 부족 출신 등 다양한 배경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가장 심각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도 강한 압력을 받으며, 종종 비밀리에 모인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집단에는 복음주의, 침례교, 오순절 교단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는 주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들은 자주 위협을 받고 때로는 폭력적 공격도 당한다.

전체 내용 확인하기

전체 내용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opendoo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나의 희망의 선물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 - 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7000원~)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 - SSTS세미나 등 (30,000원~)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30,000원~)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50,000원~)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50,000원~)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50,000원~)
- 선물9. 박해피해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30,000원~)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60,000원~)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60,000원~)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20,000원~)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 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시 후원

- 후원 항목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세요 (다중 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휴대폰,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중 하나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2. 정기 후원(매월 자동이체)

아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 5일 ○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OpenDoors


박해받는 아이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방글라데시의 로빈과 같은 아이들의 삶은 박해로 인해 갈가리 찢겨지고 있습니다.

로빈은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빈과 그의 어머니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희망을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5만 원으로 박해받는 두 가족에게 필수적인 구호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세요:

후원 계좌: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정기 후원(은행이체):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 CMS(나의 성탄절 선물)

정기후원(신용카드): 홈페이지 - 후원하기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